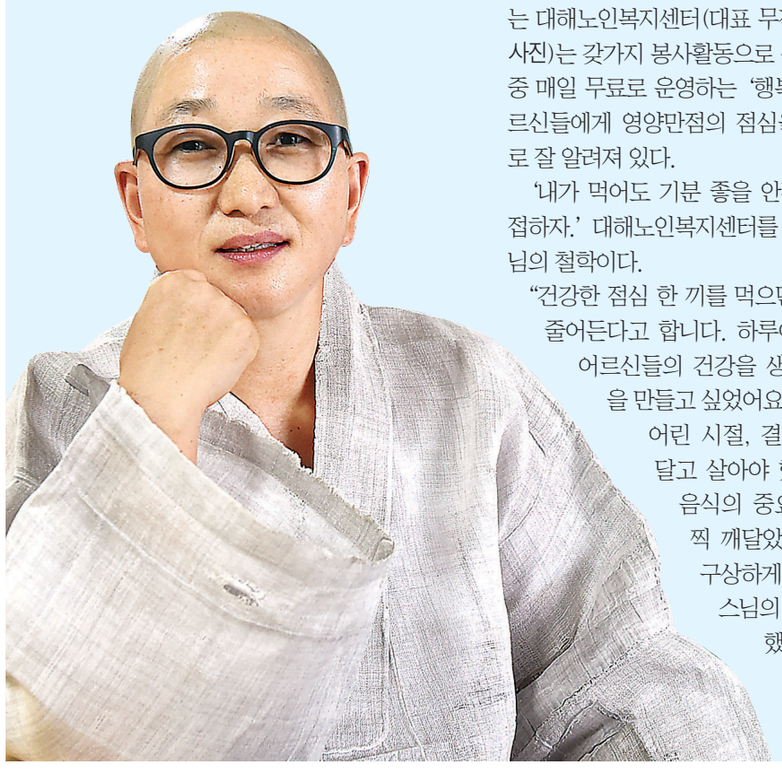
“어르신 위한 실버타운 설립이 꿈”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행복밥상 운영하는 무진 스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후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생활력 없는 노인문제는 사회가 짊어져야할 화두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불교계는 소외받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법림사가 운영하는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 법림사 주지 · 사진)는 갖가지 봉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매일 무료로 운영하는 ‘행복밥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만점의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가 먹어도 기분 좋을 안전한 먹거리를 대접하자.’ 대해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무진 스님의 철학이다.

“건강한 점심 한 끼를 먹으면 병원 갈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행복밥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결핵으로 병치레를 달고 살아야 했던 무진 스님은 음식의 중요성을 비교적 일찍 깨달았다. ‘행복밥상’을 구상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스님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스님은 사찰 아래 2000여 평의 텃밭을 가꿔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한다. 텃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는 믿을만한 매장을 통해 직접 구매한다. 특히 현대인들을 위해 3년 숙성된 효소를 만들어 조미료를 대신하고, 보리쌀을 구입해 된장 등의 양념을 만들어 유기농 밥상의 풍미를 더하고 있다.

“저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음식은 그저 단순합니다. 다만 좋은 재료를 통해 최고의 건강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매주 월~금 어르신들 식사 대접
2000평 텃밭서 각종 작물 직접 키워
매일 4~5시간 울력, 사찰음식강좌도
지역민 호응 높아 명소로 자리 잡아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것은 몸이 되듯이 농부와 내가 둘이 아니고,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행복밥상에 담긴 무진 스님의 음식관은 이처럼 명료하다. 이는 스님의 삶과도 일치한다. 무진 스님은 지금도 매일 4~5시간씩 울력을 하며 텃밭을 일군다. 최근에는 전남대 학생들을 위한 특별 사찰음식강좌도 열었다. 지난해 수강생이 10여 명에 불과했던 강좌는 어느덧 강의실을 가득 채울 만큼 인기강좌가 됐다. 스님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현재 행복밥상은 광주 동구 소태동 일대 주택가를 구입해 전체 50여 평, 60석 규모의 작은 식당으로 꾸몄다. 이곳에서 매일 1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무료로 식사를 한다. 행여 ‘무료식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위 사람들로 인해 마음을 다칠까 염려해 1000원 보시함도 설치했다. 물론 보시는 개인 자유다. “감사하다”는 어르신들의 인사는 늘 뒤따른다.

매주 월~금요일까지 문을 여는 행복밥상은 7가지의 반찬과 국 등 다양한 식단을 선보이며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아 지역 명소가 됐다.

“몸에 좋고 맛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르신들이 행복밥상 근처로 이사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죠. 최종적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즉 불교가 강조하는 연기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을 세우는 것이요.”

이 같은 무진 스님의 서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도반들과 힘을 모으는 중이다. 한 번 구르기 시작한 법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듯이 스님의 서원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도 구른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주간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생필품지원,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요가, 노래, 한글교육, 그림그리기,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500~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문화공연, 선물을 제공하는 ‘만발공양’은 지역 복지기관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

선배시민 공통 이벤트도 진행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과 선운사가 지역 내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8월 4일 복지관 관장실서 고창군 드림스타트센터가 추천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수술비 등 300만원을 환자 가족에게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은 지역 아동이 겪는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금은 지난 5월 14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고창 선운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16회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연됐다.

이 자리에서 대원 스님은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며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환아의 아픔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노인복지관은 7월 28일 고창 공용터미널 앞에서 2016년 선배시민양성 및 성공적인 노년기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공통이벤트를 진행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사랑하는 성숙한 선배시민’이라는 표어 아래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를 나누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선배시민양성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성공적인 노년기 영위를 위한 사회참여활동과 후손들에게 선배로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객체가 아닌 주체로 노년기 문제 해결, 삶의 질 및 행복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합동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 / 오후 1시 30분

전계대화상 :
世界佛教徒의 法王 –
우 꾸마라 사야도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 교수아사리 :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의 화신 제13대 에인다 빠라 삼장법사. 연방승가회 부회장 사야도
■ 갈마아사리 : 법왕청 법왕 보좌 비서실장 – 목탁 대승정 | 짜익티오성 사야도

한국본부 전계대화상 | 교수아사리 | 갈마아사리

三師 108證明團합동 建幢(건당)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정중히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이 법석에 모시고자 합니다.

석가세존에게 테라와다 불교의 정법을 위촉받은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계첩에 이름을 올릴
3師 108 證明團에 韓國佛教 高僧 元老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승려 60만의 불교나라 미얀마 최고의 큰스님과 부종정 사야도, 경전의 화신 13대 삼장법사, 짜익티오성 사야도와 상원의원 활동과 마얀마 신정부 경제특보이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불교에 보시한 보시의 화신 닥터 킨쉐이 박사가 동참하여 성스런 불교의식을 한국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국제붓다봉사단
대한불교 종단 인권위원회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총괄본부장 :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 하자 大僧正 목 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즐거운 봉축 사진으로 또 만나요”

광주불교연합회, 8월 17일부터 봉축 사진전시회

불자들의 가장 큰 축제는 봉축행사의 모습을 담은 광주지역 사진전이 열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2016 빛고을관등회 사진전-행복한 날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란 주제로 지역 사찰 등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전은 17일 증심사서 열린다.

전시회는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 점을 선별해 순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등) 회원들의 작품으로 전통등전시회(광주천), 어울림마당, 제등행진, 법요식 등에 참여한 스님들과 신도들의 환희심 넘치는 장면을 담았다.

무등 스님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봉축행사를 주제로 사진전시회를 한다. 앞으로 봉축행사에 많은 사찰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우리들의 즐거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행사 의미를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지역 주요사찰과 활동이 미비한 사찰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30여 곳에서 전시회를 연다.

한편 전시회를 주관하는 사진문화기획단은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특별기획단으로 각 사찰의 사진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광주지역 사찰 신도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많다.

강민협 회장(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은 “사진문화기획단은 사찰의 사진활동가 양성과 각 사찰 중요 행사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한다. ‘내 사찰의 사진은 내가 찍는다’는 목적으로 현재 15명의 회원이 참여해 사진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단체를 소개했다.

전시회는 증심사 개막전에 이어 20일 광산구 길상사 등 사찰 등에서 중요 법회가 있는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도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경내서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좋은이웃, 외국인노동자 축구대회 열어

5개국 6개팀 참가, 휴가 못 떠나는 노동자들 위로

고국을 떠나 한국의 산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렸다.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은 8월 3일 완주 국가산업단지 축구장서 ‘외국인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축구대회에는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등 5개국 6개팀이 참가했다.

개회식은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 박성일 완주군수와 각국 노동자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풀 리그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베트남 군산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베트남 전주팀이 준우승, 인도네시아팀이 3위를 차지했다.

정용기 대표는 “각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정작 외국인노동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각국 노동자들을 초청해 친선을 도모하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축구경기를 개최했다”며 “노동자들의 마음을 다 달랠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상팀에게는 상금과 축구공이 상품으로 제공됐으며, 참가들에게는 기념목걸이 등 기념품이 주어졌다. 또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삼계탕과 각종 음료가 제공됐다.



좋은이웃(대표 정은용)이 8월 3일 개최한 축구대회서 참가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은위덴띠번(30) 씨는 “해마다 명절과 여름휴가 때 한국인들처럼 갈 곳이 없어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다”며 “모처럼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며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이웃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잔치 한마당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